



봄철 사과, 배 과수농가 개화기 맹독성 농약 살포 금지 조치

본 협회에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조하여 도 기술원, 시·군 농업 기술센터에 행정 지시하여 과수농가 봄철 사과, 배 개화기에 맹독성농약사용을 금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지난 3월 본 협회에서는 매년

봄철 사과, 배 개화시기에 과수농가에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여 꿀벌이 대량으로 폐사되는 양봉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조하여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간 사과, 배 과수원에서는 개화기에 꿀벌의 방화 활동이 며칠 진행된 후에 적과(摘果) 노력을 줄이기 위해 꿀벌에 독성이 강한 농약(세빈 등)을 살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꽃가루를 매개하여 과실 수량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꿀벌 개체 수를 크게 감소시키고 봉군을 폐사시킴과 동시에 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에게 일 년 영농을 포기 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어 본 협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일선 지도 행정기관에 과수원 개화기에 의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양봉농가가 안심하고 봉군 사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과수원 개화기 농약살포에 의해 꿀벌이 피

해를 받았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요청하였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적 관련부분은 없지만 농약사용지침서에 의한 사용과 작목별 화분매개 효율 향상을 위한 봉군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수원 개화시기에는 과수농가와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